



“잡을테면 잡아봐”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수구 출전팀이 최종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대회 승률 67%... “수구 우승 우리 것”

문화·예술의 바다로 풍덩~

美 159년 역사 ‘올림픽 클럽’ 참가

미국서 가장 오래된 체육단체
수구 부문 3개 팀 출전
러스, 올스타전 MVP만 20회
국제 수영 명예의 전당 헌액되기도



4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에서 미국 올림픽 클럽 소속의 러스 하퍼캠프(왼쪽)와 제프 체이스씨가 웃어 보이고 있다.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에 미국 최고(最古)의 체육 클럽이 참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올림픽 클럽(Olympic Club)은 159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체육 단체다. 1860년 5월 6일 미국 최초로 창설된 체육클럽인 올림픽 클럽은 수구, 골프, 양궁, 럭비 등 종목에서 생활체육인들을 지원하고 사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림픽 클럽 수구팀은 이번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에 남성 60세 이상 부문 등 모두 3개 팀이 출전했다. 4일 오전 11시30분 훈련을 위해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을 찾은 올림픽 클럽 소속 수구 선수단은 벌써 32도가 넘어가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담금질에 한창이었다. 3개 팀의 총 감독을 맡고있는 대니(63)씨는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클럽 소속이다”며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다. 올림픽 클럽 수구팀은 18번의 마스터즈 대회 중 12번(66.6%)이나 우승을

차지한 명문팀이다. 대니씨는 “특히 60세 이상 디비전에서는 금메달을 확신한다”며 “우리 60세 이상 팀에는 러스가 든 든한 버팀목이다”고 덧붙였다. 감독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러스 하퍼캠프(64)씨는 올림픽 클럽 60세 이상 팀의 주전 공격수이자 에이스. 지난 1980년 호주리그에서 2년간 프로선수 생활을 했던 러스씨는 8번의 마스터즈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 그는 “감독인 대니보다 내가 1살이 더 많다”면서 “호주에서 프로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와 1998년부터 올림픽 클럽 마스터즈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팀이 경쟁대상이지만, 우리 우승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러스씨는 미국 수구 내셔널 MVP 3회, 마스터즈 올스타전 MVP 20회 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 수영 명예의 전당(ISHOF·International Swimming Hall of Fame)에 헌액되기도 했다. 현재 그는 미국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경력 관리와 은퇴 후 사회진출을 돕는 저서를 집필하는 등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 러스씨와 함께 수구경기장에서 연습을 같이한 제프 체이스(55)씨도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이탈리아 리그에서 활동한 베테랑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LA다저스의 오랜 팬이기도한 제프씨는 자신의 티셔츠에 새겨진 류현진의 얼굴을 가르키며 “우리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류현진은 사이영상을 수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연·전시·문화체험 행사 다양
각 나라 음식 교류·전통음악공연
맥주축제·댄스 페스티벌 등
광주시티투어버스 6개 노선 운영

대회 선수촌과 경기장 마켓스트리트,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각 나라 음식문화교류, 전통음악공연, 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전시·문화체험 행사가 열린다. 대회기간 동안 ‘물, 빛, 그리고 흥’이라는 주제로 문화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5일 남부대 주경기장에서 축하콘서트를 시작으로 13일 오후 5시 선수권 대회때 예선을 치렀던 댄스경연대회의 결선이 펼쳐지며 매일 선수촌과 경기장 주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문화광장, 광주문화회관 등에서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월드뮤직 페스티벌, 광주 연극 축제, 각종 예술제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열린다. 또 남부대 주경기장에 한국전통문화관을 운영하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통국악공연을 상설 운영한다.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맥주 축제인 ‘2019Beer Fest Gwang ju’가 개최되며 아시아푸드페스티벌, 선수권대회 때 박을 터뜨린 ‘ICT 체험관’도 계속 운영된다. 공

연, 마임, 마술쇼 등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여름시즌 행사를 대회가 끝나는 기간까지 계속 운영하고,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예술의 거리문화체험 행사’도 계속해서 운영된다. 개회식은 많은 선수와 관람객이 모이는 경영 경기가 시작하는 11일 열린다. 오후 7시 30분부터 80분간 진행되는 개회식은 남부대 ‘우정의 동산’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주제는 ‘물의 진동(Wave of Harmony)’으로 남도의 음악이 진동을 일으키고, 그 울림을 따라 세계인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룬다는 내용이다. 폐회식은 18일 오후 7시 10분부터 110분간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국내·외에서 찾는 방문객을 위한 관광 상품과 문화 행사도 풍성하다. 광주시티투어 버스는 6개 노선을 매주 주말에 확대 운영한다. 거리 연극과 도보 중심의 ‘광주 100년 시간 투어’, 양림동과 오월광장을 경유하는 ‘100년 버스’, 5·18 기록관과 옛 국군광주통합병원을 경유하는 ‘5월 버스’를 운행한다. 무등산권, 전통유적지, 예술공연관 등으로 나눠 순환형 시티 버스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외국인 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감지 타운, 전통문화관을 경유하는 특별버스 1개 노선을 운영한다. 경기 후 선수들과 동반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도 준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84개국 6000여 동호인 14일간 열전 5개 종목 59개 세부 경기 무료 관람

어떻게 치러지나

세계 수영 동호인의 축제인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8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광주에서 개최된다. 선수권대회(7월12~28)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1주일간의 준비를 거쳐 축제의 장을 시작한다. 전 세계 84개국 6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는 경쟁이 아닌 화합과 친목의 장이다. 마스터즈수영대회는 수영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참가해 연령별로 치러지는 국제수영대회로 1986년 일본 도쿄에서 첫선을 보였다. 마스터즈수영대회 참가자격은 국제수영연맹(FINA)에 등록된 각국의 수영연맹을 통해 만 25세(수구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출전가능 하며, FINA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길 만큼 권위있는 대회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국가대표들이 출전하는 선수권대회와는 별개로 격년제로 개최했으나, 2015년 제16회 러시아 카잔 대회부터 선수권대회와 함께 열렸다. 참가 자격은 국제수영연맹(FINA)에 등록된 각국의 수영연맹을 통해 만 25세(수구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출전 가능하다. 올해 대회는 84개국 6천여명이 참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10여개의 수영 동호회에서 10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하이드라이빙을 제외한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수구, 오픈 워터 등 5개 종목에 59개 세부 경기가 열리며 1~6위는 메달과 증서를 함께 수여한다.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하려 항공, 숙박, 참가비 등을 자비로 부담했다. 마스터즈 대회는 5개 종목이 치러지며 기존 조선대 하이드라이빙 경기장을 빼고 선수권대회를 치른 4개의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모든 경기는 무료입장이다. 경영과 다이빙은 남부대 주 경기장에서 12~18일 7일간 열린다. 아티스틱 수영은 5~11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수구는 남부대 수구경기장·주 경기장 경영 풀에서 나눠서 진행된다. 오픈 워터 수영은 9~11일 전남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에서 펼쳐진다. 등록된 6000여 명의 선수단 중 선수는 4032명이지만, 경기 엔트리 수는 1만705명이다. 한 선수가 여러 종목에 걸쳐 출전하기 때문이다. 경영의 경우는 1024개 동호회에서 9502명의 선수가 출전해 1인당 2-3번의 경기를 치르게 된다. 마스터즈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출전 종목별로 참가비를 부담하며, 연령별 5세 간격으로 경기가 나눠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수구 불보이 자원봉사’ 인천 용현초 김강혁·정현우·이윤효·정현지 어린이

“어려도 책임감은 어른 못지 않습니다”

수영부 감독 제안으로 봉사활동 이윤효 “수구 국가대표 되는 게 꿈”

“수구불은 우리에게 맡겨 주세요.” 인천용현초등학교 학생 4명이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를 돕고 있다. 김강혁·정현우(11·이상 4년) 이윤효(12·5년)군과 정현지(13·6년)양은 지난 3일 첫 수구 훈련부터 불보이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용현초 수영부 소속인 이들은 이민주 수영부 감독의 제안으로 마스터즈 대회 봉사에 나섰다. 이윤효군과 김강혁군은 마스터즈 대회에 앞서 지난달 끝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불보이’로 활약했다. 이들의 역할은 수구경기 도중 경기장 밖으로 나온 불을 주위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경기장 구석에 있다 아웃라인 밖으로 나간 공을 쟁긴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수구공을 정리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이 군 등은 수영·수구를 매일 훈련해온 덕에 무리 없이 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선수들을 위해 열을 이 담긴 생수병 등을 나르면서도 수구불에 시선을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수구 종목의 불보이로 나선 김강혁(맨왼쪽부터)군, 정현지양, 이윤효·정현우군이 4일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 옆 임시풀에서 수구불을 손에 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떨 줄 몰랐다. 정양은 “날씨가 생각보다 덥고 인천에 계시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조금은 힘들지만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는 게 새롭고 즐겁다”며 “수구대회가 끝나는 오는 11일까지 대회가 잘 치뤄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구 선수와 수영선수를 꿈꾸는 이들은 연일 30도가 훌쩍 넘어가는 폭염 속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직접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며 불을 쬐는 것이 즐겁기만 하다. 이 군은 “TV에서도 보기 힘든 선수들의 플레이를 가까이에서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수구 국가대표가 돼 2025년 제21회 카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